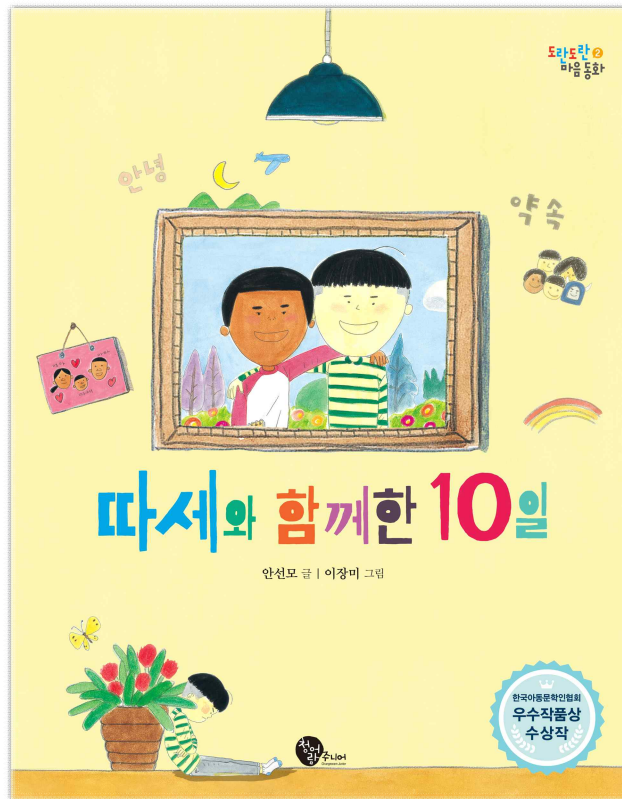


따세와 함께한 10일



책 소개

미얀마 난민 따세와 한국 아이 열이가 10일 동안 함께한 이야기입니다. 열이는 난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받기 위해 난민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수락하지요. 난민이니까 잘 대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잠깐, 따세는 이미 많은 것을 잘 하는 아이였습니다. 열이는 집에서 따세가 주인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점점 화가 납니다. 따세와 열이 무사히 10일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읽어 보아요.

안선모

작가 소개

느릿느릿 걷는 것을 좋아하며 기웃기웃 다른 세상 엿보기를 즐겨 해요. 꽃밭 가꾸기, 동물 돌보기를 좋아하고 역사 책을 즐겨 읽으며 사라져 가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동안 창작 동화 《성을 쌓는 아이》《포씨의 위대한 여름》《싸움 구경》《교실로 돌아온 유령》을 비롯하여 《둥글둥글 지구촌 학교 이야기》《궁금해요, 윤동주》 등의 다양한 책을 썼어요. 해강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남초등학교에서 신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장미

작가 소개

먼 곳에서 온 따세가 이곳에서는 엄마, 아빠와 행복하길 바라며 그림을 그렸어요. 쓰고 그린 책으로 《순간 울컥》이 있고, 그린 책으로 《조선 왕실의 보물 의궤》《네가 아니었다면》《어서 와, 여기는 꾸룩새 연구소야》 등이 있어요.

● 난민이란?

사전에서 ‘난민’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말해요. 이와 더불어 테러,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종교적 괴롭힘을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지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여 끊임없이 내전이 벌어지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다른 나라로 탈출한 난민들은 난민 캠프에서 지내게 돼요. 캠프의 시설은 매우 열악해요. 공공 의료나 교육은 기대할 수 없고, 비와 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천막이 전부랍니다.

변화하는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지구에서 네 번째로 작은 산호초 섬인 투발루 사람들이예요. 선진국들의 무계획적인 산업화로 환경은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 투발루는 해발 고도가 낮고 지형이 평평해요. 대부분의 지역이 해수면과 높이가 같지요.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져 해수면도 점점 높아져 갔고 투발루는 바닷물에 점점 잠기게 되었지요. 결국 투발루 대통령이 국토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 따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따세는 미얀마 카렌족 아이예요.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있는 멜라 캠프에 살던 카렌족은 미얀마 인구의 7% 정도예요. 카렌족은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광산 채취, 댐 건설 등 강제 노동의 고통과 차별을 겪었어요. 미얀마에서 달아난 12만 명의 난민이 멜라 캠프에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따세의 가족은 희망 없이 구호 물품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법무부의 난민 재정착 지원을 받아 한국에 왔어요.

● 우리나라의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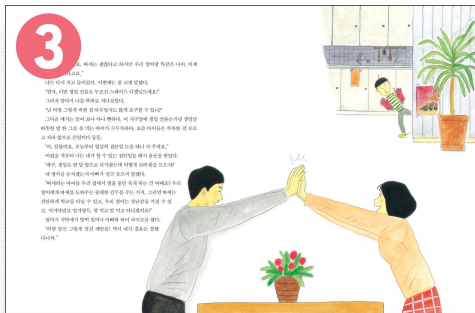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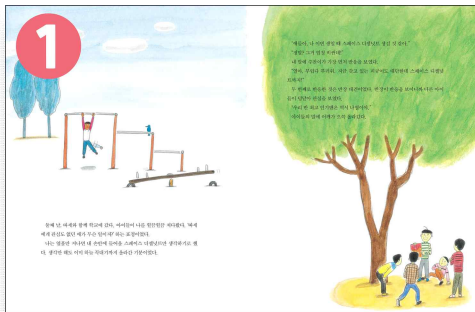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난민이 들어온 것은 2001년이에요. 하지만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은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온 뒤부터예요. 그간 대규모 난민 이동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는 갈등이 폭발했어요.

‘난민 수용 거부’의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5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하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니만큼 인도주의를 우선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요.

난민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정부는 난민 신청 심사하는 사람을 많이 뽑고, 난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생각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내용 되짚어 보기

● **이야기 순서대로 정리하기**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숫자를 써 보세요.



(▶ ▶ ▶)

● **숨은 낱말 찾기** 다음 보기를 읽고 알맞은 낱말을 찾아 ○ 하세요.

1. 파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2. 열이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3. 열이는 스페이스 디젤넛트를 생일 ○○로 받고 싶어요.
4. 한국의 잡채 요리와 비슷한 미얀마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5.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카	선	물	연	난
기	우	한	국	민
미	션	싸	피	규
얀	전	색	이	어
마	애	나	비	접

● **내용 확인** 다음 문제에 알맞은 답을 써 보세요.

1) 따세는 왜 열이네 집에 열흘 동안 머무르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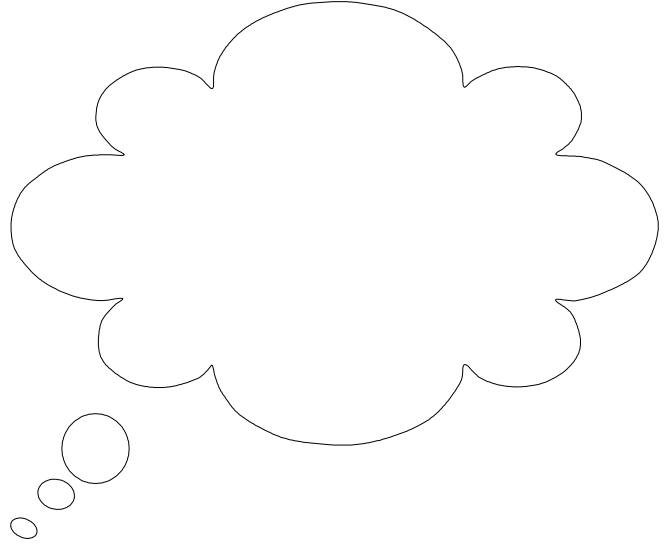
2) 따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3)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열이는 왜 부루통해서 물만 마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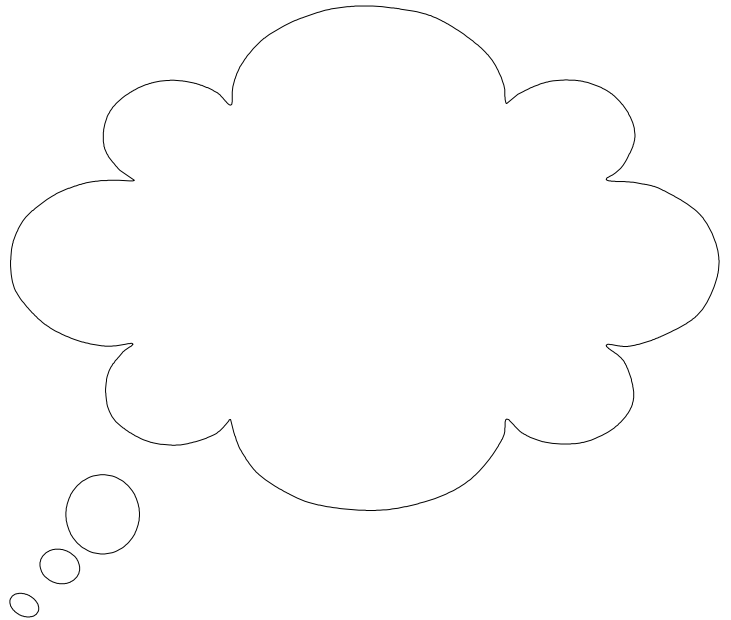


깊이 생각해 보기

- 따세의 그림을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따세가 전학 간다는 말을 들은 열이는 왜 울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기

- 여러분이 따세가 되어 열이와 함께한 10일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 [[

[illegible]

정답 확인

● 이야기 순서대로 정리하기

(3 ▶ 1 ▶ 2 ▶ 4)

● 숨은 낱말 찾기

카	선	물	연	난
기	우	한	국	민
미	션	싸	피	규
얀	전	색	이	어
마	애	나	비	접

● 내용 확인 다음 문제에 알맞은 답을 써 보세요.

- 1) 따세는 왜 열이네 집에 열흘 동안 머무르게 되었나요?
(엄마는 눈 수술을 하고 아빠는 엄마를 간호하느라 혼자 있게 되어서)
- 2) 따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미안마어로 10을 뜻한다)
- 3)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열이는 왜 부루통해서 물만 마셨나요?
(자기 피규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들떴는데, 친구들은 따세에게만 관심이 많아서)

● 따세의 그림을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따세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무척 힘들었겠구나.
- 따세가 한국에서 잘 살다가 다시 미안마로 돌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 따세가 이제 힘들지 않고 부모님과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다. 등

● 따세가 전학 간다는 말을 들은 열이는 왜 울었을까요?

- 처음에는 따세를 싫어해서 미안했기 때문에
- 따세가 좋아졌는데 헤어져야 해서
- 따세와 아직 함께 하지 못한 게 많아서 아쉬운 마음에 등